

# 마블 입성에 제작까지... 마동석 '바쁘다 바빠'

내달 '범죄도시2' 촬영 1년만 재개 이후 '더 클럽' 연기 위해 미국행 '복싱' 소재 할리우드 영화도 예고 '범죄도시' 리메이크 제작 참여도



마동석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진다. 5월 영화 '범죄도시2' 촬영을 재개하는 데 이어 할리우드 영화 '더 클럽'의 주연으로 나선다. 사진제공 | 키위미디어그룹

배우 마동석이 감염병 확산 여파를 뚫고 국내외를 무대로 배우의 행보를 더욱 넓힌다. 흥행작 '범죄도시'의 속편 촬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은 물론 제작자로서도 걸음을 내디딘다.

마동석은 5월부터 영화 '범죄도시2'의 촬영을 1년 만에 재개한다. 마동석은 최귀화, 박지환, 허동원 등 2017년 688만 관객을 불러 모은 전편 '범죄도시'의 동료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다시 나선다. 손석구 등 새로운 얼굴도 합류한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3월 중국 범죄조직 소탕에 나선 형사들의 이야기인 '범죄도시2' 촬영을 위해 베트남 로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베트남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면서 발이 묶였다.

이에 다른 무대로 향했던 마동석은 제작진이 최근 베트남 촬영 분량을 국내 세트와 CG(컴퓨터그래픽)으로 대체기로 결정하면서 배우들과 다시 뭉친다. 제작진은 2월 베트남으로 날아가 현지 풍경을 담은 뒤 이를 CG와 세트 제작

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동석은 이르면 6월까지 '범죄도시2'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범죄도시'에서 거구의 몸집이 연출하는 강렬한 액션장면 등으로 관객의 시선을 모으며 흥행을 이끈 만큼 신작에 거는 관객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뒤이어 마동석은 할리우드로 날아간다. 20일 미국 연예전문 매체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마동석은 할리우드 영화 '더 클럽'의 주연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또 제작자로도 나서 새로운 영역에서 활약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클럽'은 2019년 이서진이가 주연한 OCN 드라마 '트랩'의 미국 리메이크작이다. 뉴스 앵커 가족을 위협하는 사냥꾼에 맞서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에서 마동석은 베테랑 형사 역을 연기한다. 그는 현지 스타링스TV의 크리스 필립스 대표, 스타링스 엔터테인먼트의 카린 마틴 대표 등과 함께 영화를 공동제작한다.

이와 함께 최근 SNS를 통해 액션영화와 복싱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할리우드 등 해외 제작진과 함께 제작할 것임을 내비친 마동석은 '범죄도시'의 일본 리메이크작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2019년 주연한 영화 '악인전'의 할리우드 리메이크도 추진 중이다. 올해 11월 개봉할 예정인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까지, 마동석은 자신의 행보에 거침이 없음을 작품으로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김우빈·신민아 '우리들의 블루스' 동반 출연?



6년째 공개 열에 중인 배우 김우빈과 신민아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을 제안 받고 논의 중이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아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대본을 받고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외에도 차승원, 이병헌, 이정은, 한지민 등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에서 호흡을 맞춘 노회경 작가와 김규태 PD가 선보이는 신작이다.

### 故 이현배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마련



합합그룹 45RPM의 멤버이자 DJ DOC 이하늘의 동생인 고 이현배의 빈소가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11시,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한남공원묘원이다. 상주는 이하늘(이근배)을 비롯한 가족들이다. 고 이현배는 17일 제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9일 부검을 진행해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앞서 이하늘은 이현배가 DJ DOC 멤버들과 제주 펜션 사업을 진행하다 김창열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갑자기 빠져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졌다.

### 트와이스, 美 TV프로 '켈리 클락슨 쇼'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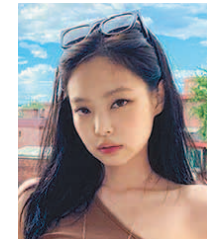
결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인기 TV프로그램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다. 2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28일(한국시간) 방송하는 NBC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해 히트곡 '크라이 포 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은 싱어송라이터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유명 토크쇼로 존 레전드, 두아 리카 등 해외 팝스타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트와이스는 다음달 12일 일본에서 새 싱글 '쿠라 쿠라'를 내놓고, 국내에선 6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 등 본격적인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 사이니 태민, 내달 31일 육군 군악대 입대



아이돌 그룹 사이니의 태민이 5월 31일 입대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 "태민이 육군 군악대에 지원,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5월31일 입소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태민이 조용히 입대하기를 희망해 입대 장소와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고 당일 별도의 행사도 진행하지 않는다. 그는 입대 전 다음달 2일 온라인으로 솔로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태민:네비 고나 댄스 어게인'을 개최한다. 태민은 2008년 15세 나이로 사이니로 데뷔해 그룹과 솔로가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 "제니,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했다" 신고 민원



결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파주시 측은 "제니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가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니는 파주의 한 수목원에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 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당시 사진 속 인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 모았다. 한편 서울시는 방송제작·송출은 예외로 두고,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면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미혼부·비혼모가 어때서?... '가족 예능'에 딱이잖아!

### 비혼모 사유리·싱글맘 오윤아 응원 싱글파파 이태성·김승현 등 공감대



사유리와 아들

"'싱글맘'이 불쌍하거나 창피한 건 아니니까요!"

'자발적 비혼모'의 길을 선택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 '사유리TV'에서 내놓은 말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외국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아들 젠과 함께 5월부터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 등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아들과 보내는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최근 KBS 2TV '이웃집 찰스', MBC '라디오스타' 등에도 출연해 아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사유리 뿐만 아니다. 앞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오윤아,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이태성,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의 김승현 등이 이혼 이후 홀로 키우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출연했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을 유쾌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이처럼 최근 방송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20일 "과거에는 '싱글맘' 등 한부모가족을 동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으나,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다

양해저는 가족의 형태를 소개하면서 편견이 점차 깨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통해 일고 있는 대중적 관심이 관련 제도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지난달 KBS 시청자권익센터 게시판에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유리의 '슈돌' 하차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3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슈돌'의 강봉규 책임프로듀서는 "한부모 가구 비율이 7.3%로 급증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또 다른 모습의 가족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사유리를 출연시켰다"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만큼 또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도 방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 '외조의 왕'으로 뜬 이상우·류수영

### 이, 김소연 위해 특별출연·쿠키 선물 류, 예능프로그램서 살림 솜씨 뽐내



이상우(왼쪽)와 김소연

연기자 이상우와 류수영이 '외조의 왕'으로 거듭나고 있다. 각각의 아내인 김소연과 박하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얻고 있다.

이상우의 '특급 외조'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6월 시즌3 방영을 앞두고 있는 SBS '펜트하우스'로 더욱 빛이 나고 있다. 2000년 MBC '이브의 모든 것' 이후 '펜트하우스'로 20년 만에 약력을 소화하는 아내 김소연을 위해 2월 자정에서 드라마에 특별출연했다. 화이트데이였던 지난달 14일에는 현장 스태프를 위한 쿠키까지 대

량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덕분에 SBS 음악토크쇼 '티키타카'에도 초청받아 최근 촬영을 마쳤다. 김구라·탁재훈 등 진행자와 함께 김소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의 추억이 담긴 노래도 불렀다. 5월 방영할 출연 분량을 통해 '사랑꾼'의 면모를 제대로 과시할 기세다. 류수영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2017년 결혼 이후 겪은 3년의 공백을 딛고 현재 활발하게 안방극장을 누비고 있는 아내 박하

선을 위해 육아와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남편의 외조로까지 힘을 얻은 박하선은 지난해 tvN '산후조리원'과 카카오TV '머느라기' 등에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올해 여름 방영하는 MBC '검은 태양'의 주인공으로 나서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류수영은 아내를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활동 영역도 넓혔다. 최근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박하선 이)걱정 없이 연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다 감사할 정도"의 손끝 아무진 살림 솜씨를 공개했다. SBS '나의 판타지' '류수영의 동물티비' 등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5월19일에는 오랜만에 '본업'인 연기자로서 4부작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를 선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분노의 질주' 등 한국 최초 공개 코로나 이후 할리우드 대작 흥보 변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잇따라 한국을 첫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빚어낸 새로운 흐름이어서 흥행 결과가 주목된다.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과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신작 '분노의 질주: 더 얼티미트'(분노의 질주)가 5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 각각 미국 등보다 일주일이나 한 달 이른 시기를 택했다. 그동안 시차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일정 시간 앞서 영화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지만, 두 작품처럼 실질적인 한국 최초 개봉은 흔치 않았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은 5월5일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화재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지닌 소방대원이 킬러들에게 쫓기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분노의 질주'는 20일 러시아와 홍콩, 21일 중국 등은 물론 6월25일 미국 등 북미지역에 한 달이나 앞서 한국에서 개봉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일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극장 개봉을 미루거나 스트리밍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동시 공개 방식을 택한 점에 비해 더욱 눈길을 끈다. '분노의 질주'의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 측은 "한국 국민의 수준 높은 방역의식과 극장의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확산에 미국 극장들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처했지만, 한국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각 극장이 정상적으로 관객을 맞이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이다.

또 호쾌한 카 레이싱 액션 장면 등을 과시해온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할리우드 대작이 그동안 꾸준히 한국 관객의 호감을 얻어온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한국 관객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